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영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선비 정신과 사랑방 문화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문화가 최고의 상품이 되어 국가 경쟁력의 축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에게선 정신문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이 있다. 선비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조선 왕조가 준 최고의 선물이다.

조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장수 국가다. 힘이 아닌 교화를 통해 다스리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백 년이 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성리학적 명분에 근거한 왕도정치를 지향하였고, 그 바탕에 선비라는 모범적 인간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선비는 조선 왕조가 설정한 최고의 이상형 인간이었던 것이다.

원래 선비라는 말은 몽고어 '박시'에서 왔다고 한다. 또 신체호는 선의 무리 즉 선비(仙羈)가 어원이라고 하고, 김동욱은 선배(先輩)와 같은 개념으로 신라의 화랑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어질면서도 지식이 충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훌륭한 사람의 자취나 착한 행실은 반드시 좋은 영

향을 끼친다는 '선비 논 데서 용 난다'는 속담도 이에서 생겨난 듯하다.

선비는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며 학에 일치(學藝一致)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추구하였다. 문사철(文史哲)을 통해 이성적 판단 능력을 높이고, 시서화(詩書畫)를 통해 감성 근력을 키웠다. 선비는 이성 교육과 감성 교육을 아우르으로써 삶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키려 하였다. 머리는 차고 가슴은 따뜻한 인간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원칙을 지키되 그 범위 안에서 상황에 따라 입기응변을 하는 유연성(經緯史),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는 책임 의식(先公後私), 강자에게 당당하지만 약자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抑強扶弱) 등이 선비 정신의 대표적 덕목들이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며 숭순수범을 우선으로 삼는 성기성물(成己成物)의 태도는 물론, 밋과 풍류를 곁들여 삶 자체를 이상화하려는 여유도 가

지고 있었다.

이런 선비 정신을 구현하는 열린 공간이 사랑방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 사랑방은 가부장적 주거 공간인 동시에 손님과 정담을 나누는 문화 쉼터이기도 하다. 신독(慎獨)을 위한 개인의 광장인 동시에 인정을 나누는 소통의 마당이었던 셈이다. 이런 전통 덕분인지 7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 사랑방이 더러 있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각 가정의 애정사를 같이 슬퍼하고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풍경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사랑방 문화나 선비 정신은 오늘날 되살려야 할 빛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명실상부한 한류 상품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을 살려 나간다면 한국은 동양의 모범적인 신사인 선비가 많이 사는, 정과 품격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격도 저절로 상승 하리라.

종교칼럼

하이불류(和而不流)의 철학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든 인공지능이건 간에 감정에 치우침이 없는 평상심이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서 하이불류(和而不流)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화하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화합하다는 뜻의 화(和)는 동양 음악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가 모여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낼 때, 그 새로운 소리를 화(和)라고 합니다. 화음(和音)이란 의미도 서로 다른 소리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소리라는 뜻입니다.

화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음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정이 화합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다른 소리를 인정하고 내 소리를 그 소리에 맞추려면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만 돋보이고 나만 보이려 한다면 절대로 화음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음악의 화음을 인간세계에 응용한 철학이 하이불류의 철학입니다. 하이불류는 '서로 다름을 모아 새로운 화합의

소리를 만들어내려'는 뜻입니다. 아니불(不)과 流(흐를 류)는 그러나 절대로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방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상대의 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한수씩 나누어 뒤야 합니다. 서로 융화상박으로 최선의 수를 찾으려는 투혼이 있을 때 바둑은 하나의 완전한 명국이 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용의 '하이불류' 철학이 생각나는 것은 선거 또한 바둑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정책 대결로 모두가 행복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이불류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와 다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다름은 나의 적이 아니라, 갈음만이 내 편이라고 하는 철학으로 는 더 이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밤과 낮으로 돼 있습니다.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부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 조절 역시 음은 양을 인정하고 양은 음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한쪽 날개로는 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는 “최대의 행복은 최대의 불행을 넘어서야 오나니 심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이 인욕 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팔다리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넘기신 공덕이 없었다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었겠는가? 장차 우리도 그런 경계가 수없이 있으리라, 단단히 각오하고 넘기지 않으면 진리가 자력이 없다하여 남김없이 빼앗고 떠나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남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 받지 않고자 하거든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만 정작 본인이 복을 지을 자리는 게을리 합니다. 과정과 결과를 별개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씨앗을 심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과 수확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화하되 주체를 세우고,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하이불류의 철학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社說

뜨거워지는 선거판, 불법 발붙이지 못하게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돼 오늘 마감된다. 여야 공천자와 무소속 출마자들은 속속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후보들은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득표 활동에 들어간다.

문제는 선거 무드가 고조되면서 혼탁·과열 양상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적발된 위반 사항은 모두 49 건이다. 주된 내용은 상대후보 비방·흑색선전·항응 제공 등으로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9건 ▲이첩 1건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보다 입건된 선거사범이 44% (18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분거지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은 혼탁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다.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사전 불법 움직임도 치열했던 데다 본선에 들어가면 불법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위법 소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는 산악회 활동 과정에서 탈법으로 고발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지지자 등 5명이 구속됐다. 전남에서는 한 예비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정황이 포착됐고, 허위로 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대량 배부한 출마 예정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투표에 앞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불·탈법·이탈계를 치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어렵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과 헛소문은 유권자들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자질 낮은 후보자가 급품이나 항응으로 유권자를 매수할 경우 능력 있는 인재 발굴을 막게 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관위와 검·경은 위법의 경증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부정행위 발견 즉시 신고해 불법이 아예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아차 운송회사·화물차주 상생 모색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상용차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들이 완성차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현대글로벌비스 측은 운송료 인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대글로벌비스 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인하하려 한다며 오는 29일부터 총 파업까지 예고해 수출 물량 공급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가리아분회 등에 따르면 4개 업체 소속 화물차주 110명은 현대글로벌비스 측이 운송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오는 7월부터 운송료를 깎으려 하는 것에 반대에 파업을 나선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광주~목포항 구간 운송료를 완성차 6대 기준으로 기존 28만 50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4만 8000원 낮춘 23만 7000원을 지급하기로 통보했다고 한다.

운송료 인하는 결과적으로 차량 1대를 '공짜'로 탈승해 달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화물차주들은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

러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현대글로벌비스 측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광주~목포항 구간 운송료를 기존 6대분 지급에서 5대분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가 화물차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갑질 논란'으로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번에도 현대글로벌비스와 기아차는 국제유가 하락, 경기도 등 타 공장과 형평성을 맞추는 정상화 방안이라며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입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06년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위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갑'의 횡포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하는 '윈-윈' 경영만이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늪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는가.

無等鼓

4·13총선을 20일 남겨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역구마다 공천자는 한 명뿐이니, 탈락자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국회 입성'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4년간 흘린 피땀을 생각하면 탈락자의 분노와 항의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공천 탈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후보는 땅바닥에 드러눕거나 도끼를 들고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에 다른 당으로 옮겨 가는 이들도 적지

한 희생'의 의미가 짙게 스며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더민중 정정래 의원도 "성질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잔칫상 대지머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돼지머리는 우리 전통문화에서 제천(祭天)의 '제물'로 쓰여 왔다는 점에서 역사 희생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경선에서 탈락한 한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동안 보내 주신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고, 성원을 잊지 않

고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문장을 읽다가

희생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늘에야 목련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온한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정말, 얼마나 소중한 도전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꿈을 잃고 난 뒤 깨어난 것처럼, 망연히 하얀 목련 꽃을 바라볼 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 왔다. 힘내라고,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기 고

결핵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민영돈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회장

그 심각성에 강한 두려움과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다름 아닌 제3군 법정감염병 결핵이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결핵의 실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감염성 질환 중 발생 및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2000년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 1위를 차지해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3년부터 증가추세이던 국내 결핵신환자 발생이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신고된 결핵 신 환자는 3만 4869명으로 전년 대비 3.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속한 결핵환자 발견과 맞춤형 관리, 결핵관리기관 강화, 투자와 관심 집중 등 2011년도부터 정부 및 관계기관의 국가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 및 실천의 성과로, 관계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근본적인 결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당부드린다.

우리가 겪은 지난해 몇 달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사회가 집단 공황상태에 빠지고 국가 위상과 국민 자존심이 곤두박질 치며, 산출이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는 안전한 감염병 관리가 부른 참사이자, 값 비싼 경험치 되었다.

물론 결핵은 만성감염병인 특성상 메르스 사태와 같은 짧은 기간에 급박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국내 결핵감염률, 인구 고령화, 20대의 높은 환자 발생률, 국가주거 외국인 결핵환자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다제나선, 광범위내성 결핵 등 약이 듣지 않는 슈퍼결핵, 학교 등 집단 내 결핵발생, 취약계층 결핵발병 등 메르스 못지않은 사회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만성 감염병인 만큼 그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대까지 빛을 남겨주는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핵은 과거에, 또는 저개발국가, 빈곤층의 문제이지 우리에게겐 그저 추억의 질병으로 방심한다면 또 다른 결핵문제의 시발

점이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도 결핵은 우리 곁에 해마다 2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새로운 환자가 3만4000명 이상 발생하는 중요한 보건문제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24일)는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정부가 법률로 지정한 결핵예방의 날이었다. 오랫동안 일선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해온 한 의료인의 한마디가 머리를 스친다. "대표적인 사회적 질병인 결핵은 결핵환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질병"이라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포용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사회적 시선과 지원이 요구된다 하였다.

100세 시대의 도래를 다투어 외치는 오늘날! 더욱 건강한 개인과 감염병인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하면 결핵을 의심하고 꼭 진찰받기를 권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